

생태관광 1번지 재탄생

익산 금마면, 67억원 투입... 2024년까지 서동생태관광지 인프라 구축

익산 금마면 일대에 생태관광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구축되면서 지역의 대표 힐링 관광지로 재탄생되고 있다. 시는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명실상부한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시는 금마저수지를 중심으로 체험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의 1시·군 1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7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된다.

우선 저수지 주변 생태탐방을 위해 일부 구간에 수변 데크와 수변림 조류관찰대 등을 조성했다. 이곳을 산책하며 가까이에서 다양한 연꽃과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식물학습원과 에코캠핑장, 생태 놀이터가 순차적으로 건립된다. 식물 학습원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공사에 착공하고 에코캠핑장과 생태놀이터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지 일원에 철새와 원앙 등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과 조류관찰대 등 탐조 시설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과 함께 청정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동생태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초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환경활동가 등이 포함된 생태관광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생태자원 보전 방안을 수립하고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예

탐사단과 생태체험학교, 생태요가 힐링산책 등 체험활동을 진행했으며 생태환경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시는 순차적으로 완성되고 있는 서동생태관광지와 인근의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금마지역은 천연기념물 원앙 등 다양한 동·식물들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재탄생한 지역 생태환경이 관광자원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창의적인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평화동 공구거리의 간판이 새롭게 단장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 · 가로환경 개선’

익산시, 평화동 공구거리 간판 새 단장 ‘눈길’

익산시 평화동 공구거리의 간판이 새롭게 단장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을 완료했다.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 총사업비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화사거리~인화사거리 구간을 대상으로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들을 교체해 일관성 있고 정돈된 거리로 변화시켜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시는 이번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건물주와 입주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기존의 노후화된 벽면과 돌출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에 맞는 간판 디자인을 설계해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주민과 건물주, 입주업소는 간판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쾌적하고 환하게 밝아진 거리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며, 앞으로도 구도심의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되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간판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평화동 공구 거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등로·부송로 일원의 간판개선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폭염 · 열대야 속 한낮 작업 주의해야

군산시보건소, '온열질환 주의'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군산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군산지역에 열대야 등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군산에는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가 1명 있었으며 지난해

7명, 2020년 11명 등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 더운 시간대 휴식을 취하고 신체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보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노인, 소아, 심혈관계 질환자, 호흡기계 질환자, 신장 질환자, 당뇨

병·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아직 올해 1명의 환자만 발생했지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지방세 분할납부 전세목 확대 실시

군산시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재 재산세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분할납부를 7월 납기분부터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서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나 납세담보 없이 2개월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령 납부세액이 450만원이라면 당초 납부기한에 250만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에 나머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당초 납부기한에 300만원을, 2개월 후에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분할납부 전세목 확대는 지방세 규정에 있는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징수유예와 기한연장의 처리를 위해서 납세자의 경우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2개월 내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나 검토 절차 없이 납부세액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승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납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에 신청하면 되며 다만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등기·등록 등에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징수, 급여, 담배, 유류에 관련된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에 걸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징수유예 등의 방식대로 신청 처리된다. 시의 이번 분할납부 확대 적용 시행 기간은 오는 2023년 4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기한까지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기 시민들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일시적 세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신장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 주요현장 방문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주요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황 부시장은 지난 5일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시작으로 옥식도동 일원, 산북동 도시재생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로컬푸드복합센터 현장방문에서 황 부시장은 우기철 대비 안전한 공사진행을 주문했으며, 옥식도동에서는 가로수 수종변경, 산북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점검할 계획이다. 황 부시장은 "현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추진과정에



서 일어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라며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인화동 상생협력 상가로 상권 활성화 도모

익산시는 인화동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생협력 상가 입점자를 공개모집한다. 시는 상생협력상가(인북로10길 17-1) 입점을 통해 인화동 도시재생 지역 내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상생협력상가 1층 상가 3호에 입주할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상가 내몰림 임차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무실 또는 사업장, 기초생활수급자의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 장애인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고3 학생 맞춤형 진로 상담

익산시는 시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진로상담을 실시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진로진학상담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진로진학상담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전문가와 1:1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학생의 성적 추이에 따른 수능 성적 예측 및 대입 전형별 합격 가능성 진단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1인당 1시간의 상담을 가지고 맞춤형 진로 진학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접속 후 '시민참여' - '시정홍보' - '진로진학상담'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와 학교 재학증명서(스캔본)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장접수는 불가능하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